

『說文解字』無屬部字 部首 分析*

秦光豪**

【목 차】

1. 『說文解字』分部の 意義와 原則
 - 1.1 分部 意義
 - 1.2 分部 原則
2. 『說文解字』屬部字 문제
3. 無屬部字 部首 探討
 - 3.1. 併入之部
 - 3.2. 存續之部
 - 3.3. 독립 部首로 세운 이유
4. 맺음말

【초록】

許慎은 『說文解字』라는 중국 최고의 字書を 편찬하면서 部首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540개의 部首를 세워 모든 漢字를 각 部首 밑에 귀속시켜 체계 없이 흩어져 있던 漢字를 정리하고 검색의 편리를 제공하였다. 그는 “分別部居, 不相襍廁.”(부수로 분별하여 서로 어지럽게 섞이지 않게 한다.)라는 말로 部首 건립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說文解字』 540개의 部首를 조사해 보면 部首만 세워놓고 이 部首에 귀속된 문자가 하나도 없는 無屬部字 部首가 36개나 되며, 屬部字가 단 1개뿐인 部首도 156개나 된다고 한다. 귀속된 문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部首가 과연 540개라는 部首의 숫자를 채우는 역할 이외에 部首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하는 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許慎은 왜 이들을 독립된 部首로 세워야만 했는지, 이보다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라는 의문에 대해 미력이나마 의견을 보태보려고 한다. 우선 36개의 無屬部字를 대상으로 『說文解字』 部首 건립의 취지와 목적, 全書에 나타난 部首 배치의 예,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小篆 字形을 분석하여 他部首와의 통합이 가능한 지 여부를 타진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說文解字』, 部首, 無屬部字, 歸屬, 併入

* 본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조성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학부 교수 (jkh@bufs.ac.kr)

1. 『說文解字』 分部の 意義와 原則

1.1 分部 意義

『說文解字』(簡稱『說文』) 이전에도 『史籀篇』, 『倉頡篇』, 『凡將篇』, 『急就篇』 등의 여러 字書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모두 문자의 배열에 정해진 체계가 없이 몇 개의 문자를 句節의 형태로 배열한 것이다. 이들은 ‘雜字’書¹⁾의 형태로 문자학적인 가치보다는 일종의 어휘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찾기 위해서는 全書를 꼼꼼히 뒤져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東漢의 許慎은 『說文』에 9,353개의 문자를 수록하여 字形과 字意를 분석하면서 배열과 분류에 ‘부수 배열법’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그는 『說文序』에서 “分別部居, 不相襍廁也.”라 하였다. “部居”란 지금의 部首를 말하는 것이며, 襍廁(잡치)는 지금의 雜混(混雜)의 뜻으로 “부수로 분별하여 서로 어지럽게 섞이지 않게 한다.”는 말이다. 許慎은 모든 漢字를 小篆體 字形을 바탕으로 意義와 聲音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여 形符가 같은 것들을 하나로 모아(類聚) 공통된 하나의 形符를 내세워 부수로 삼아(建首) 총 540개의 부수를 세웠다. 다시 같은 부수를 가진 문자들을 字形에 따라 540부수 밑에 귀속시켜 9,353개의 문자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漢字의 檢字에 혁신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는 前代未聞의 방법으로 후인들의 큰 칭송을 받는 許慎의 創見인 것이다. 이 ‘부수 배열법’은 후대 모든 字書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고, 부수로 배열 검색하는 漢字書를 字典, 音으로 배열 검색하는 것을 韻書라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통용되는 玉篇類의 字典에 보이는 214부수는 바로 許慎의 540부에서 출발하여 분화와 병합의 과정을 거쳐 간략화된 것이다.

1.2 分部 原則

540개의 부수는 크게 두 가지의 원칙으로 배열하였다. 즉 字形의 유사성에 따른 ‘據形系聯’의 방법과 字義의 유사성에 의한 ‘據義系聯’의 방법이다. 許慎은 『說文後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부수를 세움에 一자를 세워 시작하였다. 같은 부의 자를 하나로 모으고 부에 따라 무리를 나누었다. 같은 부끼리는 서로 끌어 모으고 같은 이치로 서로 연관시켰으니, 섞여도 경계를 넘지 않게 하고 자형에 의거하여 연계시켰다.”²⁾

이의 ‘據形系聯’이라는 말에 대해 『段玉裁注』에는

1) ‘雜字’書란 말은 周祖謨의 『問學集』「許慎及其說文解字」에서 표현된 말이다.

2) “其建首也, 立一爲尙. 方以類聚, 物以羣分, 同條牽屬, 共理相貫, 襍而不越, 據形系聯.”

“오백사십 부수의 차례가 대략 자형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비록 간혹 의미에 의해 순서를 배열한 것도 있기는 하나 十의 一에 불과하다. 부수는 자형으로 순서를 하였다.”³⁾라 하였다.

許慎은 모든 문자를 540개의 부수로 분류 귀속시키면서 과연 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열할 것인가를 크게 고민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위에 언급한 ‘據形系聯’과 ‘據義系聯’(‘以義相次’)의 두 가지 방법이었을 것이다. 540개나 되는 부수를 모두 ‘據形系聯’의 방법으로만 배열하기 어려워 기본 원칙은 ‘據形系聯’이었지만, 어려운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 ‘據義系聯’의 방법으로 보조하였다. ‘據義系聯’은 자형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의미가 유사하거나 같은 부류의 문자 끼리를 엮어서 배열한 것이다. 동물류, 干支類, 숫자류 등도 이의 한 예로 ‘據類系聯’이라 말할 수 있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도 발생하여 形과 義의 연관성이 없는 것도 눈에 띈다. 540부수 간의 연계성에 대해 매 부수 밑의 『段玉裁注』를 보면, 여러 표현 중에 “蒙某而次之”, “不蒙上” 등의 표현이 가장 자주 보인다. “蒙某而次之”는 “앞의 某 부수자를 받아 다음에 배열한다”는 뜻으로 ‘據形系聯’이나 ‘據義系聯’을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不蒙上”은 앞의 부수와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쓴 표현이다. 따라서 부수 배열의 원칙은 ‘據形系聯’을 기본으로 ‘據義系聯’을 보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 다 힘든 경우는 “不蒙上”의 표현처럼 독자적 배열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說文解字』屬部字 문제

許慎은 540개의 부수를 만들어 수많은 한자를 이 밑에 귀속시키는 놀라운 독창적 방안을 창조해내었다. 어떠한 문제 제기도 그의 이러한 공로를 폄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과연 540이라는 그 숫자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품게 된다. ‘分別部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아니면 숫자에 어떤 의미를 두고 인위적으로 맞춘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許慎은 ‘부수 분류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도 부수에 대해서는 『說文序』에서 단 “分別部居, 不相襍廁也.”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만 남기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단지 『後序』에서 ‘一部’에서 시작해 ‘亥部’로 끝나며, ‘據形系聯’의 배열 원칙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러한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說文』의 分部和 屬部字의 有無,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후에 여러 『說文』연구가들이 부수의 增刪 문제와 속부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단편적이거나 분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說文』은 매 부수마다 속부자에 대한 배열이 끝나고 나면 맨 뒤에 “文x, 重x”라 표기하였다(x는 숫자). 예로 王部에는 “文三, 重一”이라 하였다. 이는 王部에 속한 문자가 총 세 개이며, 이체자인 重文은 한 개라는 말이다. 이에서 부수 자체의 문자를 빼면 귀속된 문자는 모두

3) “謂五百四十部首次第大略以形相連, ……., 雖或有以義相次者, 但十之一而已. 部首以形爲次.” 『說文解字 段玉裁注』, p.789. 이하 『段注』로 간칭함.

2개가 된다. 또 三部에는 “重x”라는 말이 없이 “文一”이라고만 하였다. 이는 부수 문자만 있고 귀속된 속부자가 ‘0’이며 이체자도 없다는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蘇新春은 『說文』540개 부수에서 重文 이체자를 제외한 매 부수별 귀속된 字數가 얼마인가에 대한 통계를 내었다.⁴⁾ 이를 <표1>⁵⁾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部首別 歸屬字 數	部首 數	總比率(%)
0	36	6.7
1	156	28.8
2-4	184	34.1
5-9	56	10.4
10-49	61	11.3
50자 이상	47	8.7

<표1>

이에서 보면, 『說文』540개 부수 중에는 부수만 존재하고 이를 부수로 삼는 속부자가 하나도 없는 무속부자 부수가 무려 36개, 1개의 속부자만 있는 부수가 156개로 전체 부수의 35%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개뿐인 것도 184개나 된다.⁶⁾ 이를 모두 합하면 총 376개로 거의 전체의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은 문자와 부수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分別部居, 不相襍廁”라는 부수 배열의 취지와 원칙에는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說文』은 부수마다 “凡某之屬皆從某”(무릇 某 부수에 소속된 것은 모두 某 부수를 따른다.)라 언급하였다. 이에서 “凡”이나 “皆”라는 표현을 보면, 540부수 모두는 하나의 부수를 통해 여러 개의 문자를 귀속시킨다는 말이다. 그러나 귀속된 속부자가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라면 許慎이 말한 것처럼 “分別”의 기능이나 “襍廁”의 우려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字形上 부득이하게 타부수로 병입시킬 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부수들의 타부수와의 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행 214부수와의 연계나 부수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와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무속부자 부수 36개를 대상으로 ‘據形系聯’과 ‘據義系聯’의 방법과 小篆 자형, 그리고 갑·금문의 고문자 자료를 참고하여 타부수와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고자 한다.

3. 無屬部字 部首 探討

4) 蘇新春, 『漢語詞義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8.08, p.135. 참조

5) 진광호, 「非獨立 字素의 유형과 원인 분석」, 『중국어학』, 제59집, 대한중국학회. 2017.06, p.203.

6) 필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1개의 속부자만 있는 부수는 158개, 2-4개인 것은 181개, 5-9개인 것은 57개이다.

『說文』全書에서 36개의 無屬部字 部首를 찾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연결하여 아래의 <표 2>를 만들어 보았다.

번호	부수	설문편수	앞부수	뒤부수	번호	부수	설문편수	앞부수	뒤부수
1	三	一篇上	示部	王部	19	率	十三篇上	絲部	虫部
2	口	二篇上	口部	叩部	20	它	十三篇下	風部	龜部
3	凵	五篇上	皿部	去部	21	开	十四篇上	金部	勺部
4	久	五篇下	欠部	桀部	22	四	十四篇下	厶部	宁部
5	才	六篇上	林部	六篇上 𠂔	23	五	十四篇下	亞部	六部
6	乇	六篇下	生部	叕部	24	六	十四篇下	五部	七部
7	叕	六篇下	乇部	𠂔部	25	七	十四篇下	六部	九部
8	克	七篇上	鼎部	𠂔部	26	甲	十四篇下	冎部	乙部
9	𠂔	七篇上	克部	禾部	27	丙	十四篇下	乙部	丁部
10	耑	七篇下	耒部	韭部	28	丁	十四篇下	丙部	戊部
11	𠂔	九篇上	面部	首部	29	庚	十四篇下	巴部	辛部
12	冉	九篇下	勿部	而部	30	壬	十四篇下	辵部	癸部
13	𠂔	九篇下	豸部	易部	31	癸	十四篇下	壬部	子部
14	易	九篇下	𠂔部	象部	32	寅	十四篇下	丑部	卯部
15	𠂔	十篇上	兔部	犬部	33	卯	十四篇下	寅部	辰部
16	能	十篇上	鼠部	熊部	34	未	十四篇下	午部	申部
17	𠂔	十一篇下	瀕部	𠂔部	35	戌	十四篇下	酉部	亥部
18	燕	十一篇下	𩇑部	龍部	36	亥	十四篇下	戌部	𠂔

<표 2>

위의 표는 ‘據形系聯’과 ‘據義系聯’의 개략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無屬部字 부수의 앞 부수와 뒤의 부수를 같이 수록하여 앞뒤 자형과 자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수록된 『說文』의 편수도 같이 표기하였다.

許慎은 ‘據形系聯’을 부수 배열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지만, 540개의 부수를 모두 ‘據形系聯’의 방식만으로는 배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속부자가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한 부수들의 독립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부수 원래의 취지와 기능,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로, 『說文』은 𩇑(어)部(文二, 重一)를 독립 부수로 세워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의 𩇑(어, 지금의 漁字)字 하나만을 속부자로 배치하여 “從𩇑水”라 자형을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𩇑(선)字는 “從三魚”라 하여 魚部에 배치하고 있다. 추측컨대, 許慎은 𩇑部에는 속부자 𩇑字가 있어 따로 독립시킨 것 같다. 그러나 𩇑는 魚部의 𩇑자 앞에 배치하여 “從二魚”라 하고, 𩇑는 水部에 배치하여 “從水 𩇑, 𩇑亦聲”이라 한다면, 『說文』全書의 논리에도 부합되고 검색 기능이라는 부수의 취지에도

맞으며, 굳이 속부자가 1개뿐인 彙部를 독립 부수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건)部(文一, 重二)는 小篆문자를 표제자로 한다는 全書의 예를 깨고 古文인 <을 표제자로 삼고 小篆 문자인 𠂔자를 重文으로 하였다. 小篆인 𠂔자를 田部에 배치하고 <을 𠂔의 重文으로 한다면 굳이 무속부자인 <을 독립부수로 세울 필요가 없다. 이유를 붙인다면 <, <<, 川 세 문자를 차례로 系聯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수를 만든 주목적은 검색의 편의에 있는 것이다. 系聯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江舉謙의 말을 보면,

“부수 건립의 작용은 번다함을 간단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귀속된 문자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설문의 부수는 분명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⁷⁾고 하였다.

부수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속부자의 有無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속부자가 없는 부수가 과연 부수로서의 작용과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부수에 대한 『說文』의 “凡某之屬皆從某”이라는 표현 또한 적당치가 않다.


江舉謙은 또,

“허신은 모든 부수 밑에 “무릇 某部에 속하는 문자는 모두 某를 따른다.” 라고 하였다. 예로 三下에 “무릇 三部에 속하는 문자는 모두 三을 따른다.” 라고 하였지만 부수에 속부자가 없다면 이 말이 나타내는 바는 결국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수로 분별한다”는 의도 역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가장 의심스럽다.”⁸⁾라고 하였다.

필자 역시 이에 적극 동의한다. 따라서 속부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부수에 대해서는 타부수와 의 통합을 통해 “分別部居, 不相襍廁.”의 취지를 가능한 극대화시켜야 하며, 검색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說文』무속부자 부수 36개를 대상으로, 특히 검색 기능이 없는 숫자와 干支 관련 부수에 대해서 타부수로의 병입이나 병합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고자 한다.

3.1. 併入之部

三() , 數名. 天地人之道也. 於文一耦二爲三成數也. 凡三之屬皆從三.

天地人의 역학적 의미로 풀이하였으나 실은 숫자 三을 나타낸다. 『說文』은 一과 二가 합해 진 것이 三이라 하였다. 자형과 숫자의 개념에서 본다면 실제로 三은 一이 세 개 겹쳐진 숫

7) “部首建立之作用爲化繁爲簡. 而其前提爲歸屬之字. 在此條件之下, 說文部首顯然多有可疑.” 江舉謙, 『說文解字綜合研究』, 東海大學出版, 1978.03, p.176.

8) “按許君於每部首下並云凡某之屬皆從某. 如‘三’下云‘凡三之屬皆從三’, 部中既無屬字, 則此一語遂無所指. 而‘分別部居’之義亦無由見. 此最可疑者也.” 같은 책, p.174.

자이므로 ‘從三一’의 三文同體 회의로 그와 함께 ‘一’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說文』은 二가 5개의 속부자가 있는 관계로 一部에 귀속시키지 못하였다. 부수의 배열도 一, 三, 二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一과 三은 一篇上에, 二는 十三篇下에 土部 앞에 동떨어지게 배치하였다. ‘據形系聯’을 하지 않았다.

凵() , 張口也. 象形. 凡凵之屬皆從凵.


입 口자에서 입을 벌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위 부분이 터진 모습으로 그려졌다. 口의 생체상형이므로 『說文』의 풀이대로라면 口部 끝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자는 七篇上의 凶부와 병합하여 凶자를 속부자로 凵을 부수자로 해야 한다. 『說文』凶부에 “凶, 惡也. 象地穿交陷其中也.”(흉하다. 땅을 뚫어 乂가 그 안에 빠져있는 모습이다.)라 하였다. 이 문자는 사냥감을 생포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경계의 표시로 乂 표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凵은 구덩이나 함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문자는 지금의 함정을 나타내는 坎자의 初文이다. 凵은 口犯切, 坎은 苦感切로 우리 음은 ‘감’으로 같은 자이다. 따라서 『說文』의 凵은 “張口”가 아니라 坎의 初文으로 보아야 한다.

凵() , 凵廬, 飯器. 以柳作之. 象形. 凡凵之屬皆從凵.

이는 버드나무로 만든 밥그릇의 상형문자이다. 『說文』凵(방)부에 “凵, 受物之器. 象形.”이라 하였다. 물건을 많이 담아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입부분이 당면 위로 향해야 한다. 옆으로 쓰러트리면 물건을 잘 담을 수가 없다. 凵字는 원래 물건을 담기 위한 사각형 형태의 나무 그릇이나 상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밥그릇 凵(거)와 매우 유사한 형상이어서 두 문자의 자형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하나를 오른쪽으로 쓰러진 형태로 변형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凵部는 形義가 매우 유사한 凵部에 병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正부에 正을 좌우로 돌려놓은 모습의 乏(“反正爲乏”)자를 귀속시킨 것이 이와 같은 예가 될 수 있다.

久() , 從後灸之也. 象人兩脛後有距也. 周禮曰久諸牆以觀其橈. 凡久之屬皆從久.


『說文』의 해석에 따르면, 久자는 뒤에서 다리에 뜬을 뜨는 형상이라 하였다. 실제로 久는 灸의 初文이다. 이는 앞의 攴(치)와 자형과 자의가 매우 유사하다. 『說文』이 鳥자를 鳥部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의 독립 부수로 만들어 자형 윗부분이 다른 鳥과 焉을 이에 귀속시켰다. 이 예로 본다면 久 또한 攴部에 병입시킬 수 있는 논리가 가능하다.

才() , 艸木之初也. 從丨上貫一, 將生枝葉也. 一, 地也. 凡才之屬皆從才.


『說文』은 초목의 싹이 땅(一)을 뚫고(丨) 돌아나는 모습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一篇上 “丨, 下上通也.”의 丨(뚫을 곧)부에 병입해도 자형과 자의상 무방하다고 본다. 『說文』이 林部 뒤에 배치한 것은 초목과 관련지은 ‘據義系聯’의 성격이 강하다.






乇() , 艸葉也. 上卅一, 下有根. 象形字. 凡乇之屬皆從乇.


이 역시 땅(一)을 뚫고(丨) 나온 초목에서 뿌리와 잎(丿)이 난 모습이라 하였다. 그러면 위의 才자처럼 丨部에 병입시킬 수가 있다.


𦵏() , 艸木華葉𦵏. 象形. 凡𦵏之屬皆從𦵏.

이는 초목의 꽃과 잎이 무성해 아래로 늘어진 모습으로 지금의 垂字이다. 이는 다음 부수 𦵏(花)의 자형과 윗부분이 같다. 『說文』에 “𦵏, 艸木華也. 從𦵏, 亏聲.”이라 하였다. 𦵏자가 從 𦵏이므로 𦵏部를 𦵏部에 병입시켜 𦵏를 속부자로 𦵏를 부수자로 해야 한다. 『說文』은 𦵏部の 속부자 韡(從華, 韋聲)의 처리가 어려워 분리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余와 𦵏를 같이 八部에 귀속시킨 예를 따르면 𦵏部에 병입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예라면 余部는 八部에서 독립시켜 𦵏를 귀속시켜야 한다.

克() , 肩也. 象屋下刻木之形. 凡克之屬皆從克.

이 문자는 앞의 鼎部와 뒤의 𦵏部와 자형·자의상 관계가 없이 생뚱맞게 끼어든 느낌이 든다. 『段玉裁注』에도 “不蒙上”이라 하였다. 𦵏部 部首 『段注』에 “克之類也. 故次之.”라 하였으나, 이는 『說文』의 “𦵏, 刻木𦵏𦵏也. 象形.”에서 ‘刻木’이라는 공통성으로 인해 “克之類”라 한 듯하다. 그러나 克의 小篆 字形에서 “刻木”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說文』의 해석 “象屋下刻木之形”에서 “屋”이라 한 것은 가옥이나 건물을 나타내는 문자 高() , 郭() , 京() , 享() , 畝() 등의 윗부분과 克의 小篆 윗부분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克部는 이들 중 하나로 병입시키는 것이 자형·자의상 오히려 타당하다.

𦵏() , 刻木𦵏𦵏也. 象形. 凡𦵏之屬皆從𦵏.

『說文』의 해석에 의하면, 𦵏은 ‘칼로 나무에 새긴다.’는 뜻으로 ‘칼로 벗기다’는 剝자와 유사하게 보았다. 나무에 새기기 때문에 ‘據類系聯’을 하여 식물류인 禾部 앞에 배열한 듯하다. 그러나 자형·자의상으로 보면 六篇下の 𦵏()部가 더 가깝다. 𦵏部에 “𦵏, 木汁可以鬚物. 從木, 象形. 𦵏如水滴而下也.”라 하였다. 이는 옷의 수액을 내기 위해 옷나무를 칼로 새겨 즙이 흐르게 하는 형상으로 지금의 漆字이다. 실제로 𦵏은 ‘도르래’를 나타내는 轆의 초문으로 밑의 부분은 떨어지는 물방울을 나타내며 물 水의 변형이다.

𦵏() , 物初生之題也. 上象生形, 下象根也. 凡𦵏之屬皆從𦵏.

이 문자 역시 『段注』에 “不蒙上”이라 하여 앞뒤 부수와의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說文』은 “식물이 땅을 뚫고 그 머리가 막 돌아나는 모습”이라 풀이하였다. 위는 初生の 모습이고 밑은 그 뿌리로 지금의 端字이다. 이 부수는 자형·자의상 一篇下 𦵏部와 연관이 깊다. 『說文』에 “𦵏, 艸木初生也. 象丨出形, 有枝葉也.”라 하였다. 𦵏은 초목이 막 돌아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므로 𦵏은 𦵏部에 병입시킬 수 있다.

𠂔(𠂔), 不見也. 象離蔽之形. 凡𠂔之屬皆從𠂔.

『說文』은 “얼굴을 가린 모습”이라 하여 “不見”이라 풀이하였다. 그래서 의미의 연관성 때문에 面과 首 사이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용례가 극히 적어 정확한 자형과 자의의 풀이가 어렵다. 이 문자는 二篇下 正(𠂔)字와 字形이 매우 흡사하다. 正部의 乏자에 “乏, 春秋傳曰反正爲乏.”(춘추전에 正字를 반대로 놓은 것이 乏자이다라 하였다.) 小篆의 자형을 보면 乏은 𠂔의 형상으로 바로 𠂔자를 좌우로 뒤집어 놓은 형상이다. 左右相反의 문자를 속부자로 귀속시켰다면 오른쪽 한 획을 아래로 길게 늘어트린 𠂔도 병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𦍋(𦍋), 如野牛. 青色, 其皮堅厚, 可制鎧. 象形. 𦍋頭與禽離頭同. 凡𦍋之屬皆從𦍋.

들소의 상형으로 푸른색을 띠며 가죽이 두껍고 견고하여 갑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뿔 달린 머리 모습이 달라서 독립시켰지만, 앞의 鳥部에 𦍋과 𦍋을 귀속시킨 예로 본다면 짐승을 나타내는 앞의 豸(치)部에 병입시켜도 무방하다. 豸의 소전은 𦍋으로 머리 부분만 약간 다를 뿐이다.

𦍋(𦍋), 蜥易蜥蜴, 守宮也. 象形. 祕書說曰日月爲易, 象陰陽也. 一曰從勿. 凡易之屬皆從易.

易은 지금의 蜥蜴의 蜴자로 도마뱀의 상형문자이다. 소전의 자형은 易으로, 위의 𦍋部처럼 豸(치)部에 병합시켜도 무방하다.

𦍋(𦍋), 山羊細角者. 從兔足, 從苜聲. 凡𦍋之屬皆從𦍋. 讀若丸寬字從此.

산양의 일종으로 뿔이 가는 것이라 하였다. 돌아난 뿔이 토끼의 귀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從兔足”이라 하였으므로 앞 문자들의 예로 보아 兔部에 병입시켜도 무방하다.

𦍋(𦍋), 熊屬. 足似鹿. 從肉, 以聲. 能獸堅中故倂賢能. 而彊壯倂能傑也. 凡能之屬皆從能.

『說文』의 해석대로 能이 ‘熊屬’이라면 위와 같이 형성문자가 아니고 상형문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能部和 熊部는 합해야 한다. 『說文』에서 龍자도 “從肉, 童省聲”의 형성자로 보았지만 실재로는 상형문자이다. 能과 熊은 자형상이나 자의상에 있어서 당연히 동일 부수로 병합해야 한다. 그러나 『說文』이 둘을 병합시키지 못한 이유는 熊部の 속부자인 𦍋字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서였을 것이다. 『說文』에 “𦍋, 如熊黃白文. 從熊, 𦍋省聲.”이라 하였다. 熊자를 能部に 귀속시켜 熊자를 ‘從能’이라 한다면 𦍋자의 자형분석에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熊部に 能을 병입시켜 ‘熊之省足形’이나 ‘從熊省’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殺部に 유일한 속부자인 𦍋를 “從殺省, 式聲”이라 하여 귀속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𡿨(𡿨), 水小流也. 周禮匠人爲溝洫, 柝廣五寸, 二柝爲耦. 一耦之伐, 廣尺深尺謂之𡿨. 倍𡿨謂之遂, 倍遂曰溝, 倍溝曰洫, 倍洫曰𡿨. 凡𡿨之屬皆從𡿨. 𡿨, 古文𡿨. 從田川. 田之川也. 𡿨, 篆

文く. 從田,犬聲.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를 그린 것으로 周나라 때 도량의 크기에 따른 명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문자는 특이하게 小篆인 畎자를 重文으로 하고(畎, 篆文く), 古文인 く을 표제자로 하였다. 『說文敍』에 “今敍篆文合以古籀”(지금 소전을 앞에 두고 고문과 주문을 합한다.)라 하였다. 즉 小篆문자로 표제자로 삼고 古文과 籀文을 뒤에 重文으로 둔다는 말이다. 그러나 드물게 古文이나 籀文을 표제자로 삼고 小篆을 重文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一篇 上에 “二, 高也. 此古文上. ...上, 篆文上.”라 하여 古文인 二(상)을 표제자로 小篆인 上을 重文으로 하였다. 이는 小篆 중에 二(상)을 부수로 삼는 속부자는 3자나 있지만, 上을 부수로 삼는 문자는 없기 때문에 문자 귀속의 편의를 위해 바꾸어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く部는 이러한 이유와 반대로 小篆인 畎를 重文으로 돌리고 무속부자 古文 く을 표제자로 하였다. 아마도 뒤의 ㄱ部, 川部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로 추측된다. 그러나 畎가 小篆이라면 이 문자는 ‘從田, 犬聲’의 형성자이므로 마땅히 田部에 배치하고 く을 重文으로 해야 한다.

率() 率, 捕鳥畢也. 象絲網, 上下其竿柄也. 凡率之屬皆從率.

率은 새를 잡는 그물의 상형문이다. 중간은 실로 그물을 엮은 모습을, 上下는 손잡이를 그린 것이다. 따라서 率은 糸部에 병입시킬 수 있다.

它() 它, 虫也. 從虫而長, 象冤曲蛭尾形. 上古艸居患它, 故相問無它乎? 凡它之屬皆從牠. 蛇, 它或從虫.

它(사)는 뱀의 상형문으로 지금 쓰는 蛇자의 初文이다. 갑골문에서 虫과 它是 원래 동일한 문자였다. 후에 다른 문자의 편방과 단독 문자 두 가지로 사용되면서 자형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편방은 虫로, 단독 문자는 它로 분화되었다. 후에 它字가 가차되어 대명사로 쓰이게 되자 它에 형부 虫을 가해 ‘從虫, 它聲’의 形聲專字인 蛇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說文』重文의 蛇字가 그 증거이다. 『段注』에도 “它篆本以虫篆, 引長之而已, 乃又加虫.”(它的 소전은 본래 虫의 소전으로 이를 길게 늘였을 뿐이다. 이에 다시 虫을 가하였다.)라 하여 它와 虫이 같은 字源임을 말하고 있다. 역시 앞 鳥部의 鵠과 焉字의 예에 비추어 它部는 虫部에 병입시켜야 한다.

开() 开, 平也. 象二干對莠, 上平也. 凡开之屬皆從开.

“象二干對莠”(두 개의 干이 마주한 모습)이라 하였다. 따라서 ‘從二干’이라 할 수 있으므로 干部에 병입시켜야 한다. 『說文』에서 “象二干對莠”라고 하면서 독립 부수로 세운 의도가 이해하기 힘들다. 앞의 金部와 뒤의 勺部와도 자형이나 자의상 관련이 없다. 『段注』에도 모두 “不蒙上”이라 하였다.

四() 四, 𠂔數也. 象四分之形. 凡四之屬皆從四.

許慎은 의도적으로 一에서 十까지의 숫자는 속부자의 有無나 ‘據形系聯’의 원칙과 관계없이

모두 독립 부수로 세웠다. 干支 문자 22개와 함께 일종의 특별대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干支 문자는 모두 순서대로 배열을 한 반면에, 숫자는 배열에 있어 一, 三, 八, 十, 二, 四, 五, 六, 七, 九의 순서로 하였다. 아마도 모든 것은 一에서 시작하므로 『說文』도 ‘一’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四 이후의 숫자와 연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숫자와 干支 문자는 모두 의도적으로 독립을 시켰지만, 이와 무관하게 자형적 측면에서는 부수 병입이나 병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四字에 대해 許慎은 ‘從口,從八’의 개념으로 보았다. 口(위)는 사방과 지역이고 八은 나누다는 뜻이므로 “지역을 사방으로 나누는 형상”이라 하였다. 따라서 四部는 口部나 八部に 병입시켜야 할 것이다.

五(𠄎), 五行也. 從二, 龝易在天地間交午也. 凡五之屬皆從五.

五는 五行으로 음과 양이 天地(從二)간에서 교차(𠄎)하는 모습으로 풀이하였다. 전형적인 漢代의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許慎의 해석에 의하면 五字는 음양오행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겨난 문자라는 논리가 된다. “從二”이므로 二部에 병입시킬 수 있다.

六(𠄎), 易之數. 龝變於六正於八. 從入八. 凡六之屬皆從六.

周易에 六을 陰, 九를 陽으로 보았다. 周易의 해석에 의해 음수의 개념으로 풀이하였다. “從入八”이라 하였으므로 역시 入部나 八部に 병입시킬 수 있다.

七(𠄎), 易之正也. 從一. 微龝從中袞出也. 凡七之屬皆從七.

一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 한번 꺾어져 나오는 모습(袞出)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一部로 병입시킬 수 있다.


甲(甲), 東方之孟, 易氣萌動. 從木, 戴孚甲之象. 大一經曰人頭空爲甲. 凡甲之屬皆從甲.

『說文』에 자형 분석을 “從木, 戴孚甲之象.”이라 하였다. 이는 甲字의 字形에서 아래의 ‘丁’은 나무의 막 돌아난 싹으로 보아 “從木”이라 하였으며, 위는 싹이 씨앗의 씨껍질(孚甲)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본 것이다. 싹이 돌아나므로 만물의 시작과 출발의 의미에서 十干의 으뜸이 되었다고 하였다. 계절로는 일 년의 시작인 봄이며, 방향으로는 해가 뜨는 동방의 으뜸이라 하였고, 양기가 움트고 초목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풀이하였다. 이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說文』의 풀이대로 라면 甲은 ‘從木省’으로 보아 木部에 배열되어야 할 것이다.


丙(丙), 位方南, 萬物成炳然, 龝氣初起, 易氣將虧. 從一入門. 一者易也. 丙承乙, 象人肩. 凡丙之屬皆從丙.

丙은 十干의 세 번째로 丁과 함께 남쪽과 여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만물이 밝고(炳) 크게 성장하며, 한편 가을을 준비하므로 음기가 일어나고 양기가 기울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丙字의 字形을 “從一入門”의 三文異體會意로 보았다. 또한 “一者易也”라 하여 “一”을 의미의 중


심으로 보았으므로 당연히 一部에 귀속되어야 한다.

丁() , 夏時萬物皆丁實. 象形. 丁承丙, 象人心. 凡丁之屬皆從丁.


여름이 되어 만물이 성숙해 크게 자란 모습의 상형이라 하였다. 상형이라 하였지만 무엇의 상형인지 字形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갑골문의 字形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小篆의 자형만으로 추정하면, 위는 식물의 줄기나 가지의 모습을, 밑의 丨은 이에 매달린 열매의 모습으로 본 것 같다. 자형상 丨部에 배치가 가능하다.

庚() , 位西方. 象秋時萬物庚庚有實也. 庚承己, 象人臍. 凡庚之屬皆從庚.


庚은辛과 같이 서쪽과 가을을 나타낸다. 가을이 되어 만물이 익어 결실이 풍성한 모습이라 풀이하였다. 『說文』의 해석대로 자형을 풀이하면, 줄기를 나타내는 干(竿, 幹)에 풍성한 결실이 매달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형상 干部에 병입시킬 수 있다.

壬() , 位北方也. 含極易生, 故易曰龍戰于野, 戰者接也. 象人褻妊之形. 承亥壬以子生之敘也. 壬與巫同意. 壬承辛. 象人脰脰任體也. 凡壬之屬皆從壬.


壬은 癸와 함께 十干的 끝으로 북쪽과 겨울을 나타낸다. 겨울이 되어 음기가 극에 달하면서 서 봄을 준비하는 양기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壬을 “象人褻妊之形”이라 하여 아이가 생겨나는 회임의 모습이라 하고 妊字의 初文으로 보았다. 『段注』“壬與巫同意”의 밑에 “巫像人兩袖舞, 壬像人腹大也.”(巫는 사람이 양 소매로 춤을 추는 형상이고, 壬은 사람의 배가 불러진 모습이다.)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壬의 중간 획은 회임을 하여 배가 불러진 모습이라는 풀이이다. 갑골문의 자형과는 다르지만 小篆의 자형에 의하면 막 생겨난 태아이므로 만물의 시작인 ‘一’部로 병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寅() , 鼯也. 正月易氣動, 去黃泉欲上出舍尙強也. 象宀不達鼯寅於下也. 凡寅之屬皆從寅.


十二支의 세 번째로 정월달이다. 정월 들어 양기가 동하기 시작하나 황천에 들어가 있어 꿈틀거리(鼯) 나오려하지만 아직은 음기가 강해 못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宀에 의해 덮여있어 못나오는 형상이므로 從宀이라 풀이하였다. 자형이 從宀이므로 마땅히 宀部에 귀속될 수 있다.

卯() , 冒也. 二月萬物冒地而出, 象開門之形. 故二月爲天門. 凡卯之屬皆從卯.


“이월이 되어 만물이 땅을 뚫고(冒地) 나오는 것으로 마치 문을 열어 놓은 형상이다.” 그래서 二月을 “天門”이라 한다 하였다. 자형은 문 戶字를 좌우로 벌려놓은 모습이다. 從戶이므로 戶部에 병입이 가능하다.

未() , 味也. 六月滋味也. 五行木老於未. 象木重枝葉也. 凡未之屬皆從未.

六月이 되면 만물이 다 성숙하여 맛이 잘 들게 되며, 또한 그때부터 꺾여 시들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성숙하여 나뭇가지가 중첩(重)된 모습이고 맛 味字의 本字로 보았다. 자형이 從木이므로 木部에 병입시킬 수 있다.

戌() , 威也. 九月易氣微, 萬物畢成, 易下入地也. 五行土生於戌, 盛於戌. 從戌一, 一亦聲. 凡戌之屬皆從戌.


구월이 되어 양기가 쇠미해진다. 만물이 다 성장하고 양기가 하락하여 땅속으로 들어가 없어지게 되므로 “威”(滅)이라 풀이하였다. 반면 土氣는 번성하게 된다(盛於戌). 小篆의 자형을 “從戌一, 一亦聲”의 형성자로 보았으므로 戌部에 병입시킬 수 있다.

亥() , 荄也. 十月微易起接盛會. 從二. 二古文上字也. 一人男一人女也. 從乚象裹子咳咳之形也. 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 凡亥之屬皆從亥.


十二支의 끝으로 十月 연말이 되어 미약해진 양기가 성해진 음기로 이어지기 시작하여 뿌리(荄)에 모아진다는 의미이다. 一男一女가 二(上)밑에 있는 형상으로 보아 “從二”이라 하였다. 따라서 자형상 二(上)部에 병합시킬 수 있다.

3.2. 存續之部

앞에서 36개의 무속부자 부수 중에서 자형 상 타부수로의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여 보았다. 숫자나 干支와 같이 許慎이 의도적으로 독립시켰다는 부분을 論外로 하고, 단지 순수하게 小篆의 자형만으로 판단한 결과 상당수가 타부수로 병입이나 병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반면에 타부수와 병합이 어려워 비록 “不相襍廁”의 기능은 없지만 부득이하게 무속부자 부수로 독립 존속시켜야 하는 것도 있다.

冉() , 毛冉冉也. 象形. 凡冉之屬皆從冉.

冉은 털이 보송보송 부드럽게 난 모습으로 지금은 鬚髥(수염)의 髥字로 쓴다. 앞뒤 부수인 勿과 而와는 자형상 관련이 없으나 수염의 뜻이므로 수염을 나타내는 而자 앞에 배열하였다. 병합할 마땅한 부수가 없어 보인다.

燕() , 燕燕玄鳥也. 籀(𠂔)口, 布𦏧, 枝尾. 象形. 凡燕之屬皆從燕.

이는 제비의 상형문자로 부리와 펼친 날개, 갈라진 꼬리를 그린 것이다. 밑의 火(灬)는 燕尾로 魚字의 꼬리지느러미나 불 灬字와는 小篆의 자형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다른 부수와의 병합이 어렵다.

癸() , 冬時水土平可揆度也. 象水從四方流入地中之形. 承壬. 象人足. 凡癸之屬皆從癸.

十干의 끝으로 동절기를 나타내며, 水土가 평할 것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기라 하였다. 許慎은 小篆의 자형을 사방에서 물이 땅속으로 유입되는 형상으로 보았다. 小篆의 자형이 매우 특이하여 다른 부수와 병합이 어려워 보인다.

3.3. 독립 部首로 세운 이유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許慎은 왜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고, 또 부수로서의 기능이 결여된 無屬部字 부수를 36개나 독립시켜 세웠을까하는 나름의 이유를 찾아보았다. 이들 무속부자 부수를 他部首로 병입이나 병합을 하지 않고 독립시킨 이유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單位의 숫자는 속부자의 有無와 관계없이 독립시켰다.

許慎은 부수 배열의 기본 원칙으로 ‘據形系聯’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보다 앞선 이유는 許慎은 經學의 대가였으며, 그가 살던 漢代는 陰陽五行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였다. 그 영향으로 ‘一’, ‘二’, ‘三’ 등의 숫자를 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一’을 天之道, ‘二’는 地之道, ‘三’은 天地人之道의 易學의 사고를 하였다. 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속부자의 有無와 관계없이 독립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二部(文六, 重二)와 三部(文一, 重一)는 모두 同文會意로 보아 一部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 외에 八部(文十二, 重一)는 二篇上에, 四, 五, 六, 七, 九는 모두 十四篇下에, 十(文九)은 三篇上에 속부자의 有無에 관계없이 모두 독립 부수로 흩어져 수록하였다. 八은 小部와 采部 사이에, 十은 古部와 卅部 사이에 배열하였다. 干支 문자는 모두 14篇下에 모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숫자에서 八과 十만은 따로 배열하고 순서도 뒤바뀐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八은 “八, 別也. 象分別相背之形”(나누다. 나누어져 등진 모양)이라고만 하여 숫자와 전혀 무관하게 풀이하였다.

2) ‘據形系聯’보다 오히려 ‘據類系聯’을 우선 고려하여 독립시키기도 하였다.

“匚(거), 匚盧. 飯器.”(五篇上)라 하여 ‘밥그릇’이라 풀이하였다. 이는 ‘據形系聯’보다 오히려 ‘據類系聯’을 우선 고려하여 같은 그릇 종류인 皿字의 뒤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문자는 자형과 자의가 유사한 匚部에 통합시켜야 한다.

3) 병합이 가능하나 자형의 미세한 차이로 독립시켰다.

字義는 유사하나 字形이 약간 달라 동일 부수로 배치하지 못하고 독립시킨 것을 말한다. 예로 久와 攴, 兕와 豸, 易과 豸, 菟와 兔, 率과 絲, 它와 虫 등이다. 鳥部와 鳥部의 예를 보면, 鳥는 鳥의 생체상형이고 鳥類이므로 사실 鳥部에 귀속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鳥部를 독립시킨 이유는 鳥部의 속부자 鳥과 焉字 때문이다. 『說文』鳥部에 “鳥, 誰也. 象形.”, “焉, 焉鳥. 黃色, 出於江淮. 象形.”이라 하였다. 사실 이 모두는 鳥類이므로 鳥部에 배치함이 옳다. 그러나 鳥, 鳥, 焉은 모두 상형문자이고 머리 부분의 자형만 약간 차이가 나므로 鳥部에 같이 묶어 독립시킨 것이다. 엄밀히 말해 『說文』의 이러한 방식이라면 세 문자도 모두 독립 부수

로 해야 한다.

4) 字形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종류의 유사성으로 독립시켜 ‘據類系聯’을 하였다.

才部를 林部 뒤에 배열한 것도 자형과는 관계없이 ‘據類系聯’을 한 것이다. 『說文』에 “才, 艸木之初也.”(초목이 돌아나다)라 하여 같은 초목과 연관을 지었다. 乇, 𠂇, 耑, 𠂇, 能, 燕 등이 이에 해당된다.

5) ‘據形系聯’이 어려워 앞뒤 부수와 무관하게 부득이 독립적으로 끼어 넣었다.

『說文』에 “克, 肩也. 象屋下刻木之形.”(견디어 내다. 가옥 밑의 나무에 새긴 형상)이라 하였고, 뒤의 부수 𠂇은 “刻木𠂇𠂇也.”(나무에 뚜렷하게 새기다.)이라 하였다. 이 둘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으며, 앞의 부수 鼎과 뒤의 부수 禾와도 자형과 자의상 아무 관계가 없다. 『說文』은 이 두 문자를 의미상으로 연결 짓기 위해 “象屋下刻木之形”이라는 설득력 없는 자형 풀이를 하였다. 冉(勿과 而 사이), 开(金과 丂 사이) 등이다.

6) 논리상 병합해야 마땅하나 병합할 경우 속부자 처리가 어려워 독립시켰다.

예로, 能과 熊部이다. 같은 熊屬으로 熊은 能部에 포함됨이 마땅하나 이럴 경우 熊部의 속부자 𧢲를 能部에 귀속시킬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부득이 能과 熊을 분리시킨 것으로 보인다. 𧢲部와 𧢲部 등이다.

7) ‘據形系聯’과 ‘據義系聯’을 위해 小篆을 대신해 古文을 표제자로 삼아 독립 부수로 세웠다.

小篆 표제자 원칙을 깨고 뒤의 𠂇部, 川部와 系聯시키기 위해 무속부자인 古文 𠂇을 표제자로 삼고 小篆 문자인 𠂇은 重文으로 배치하였다.

8) 干支 문자는 字形과 속부자의 有無와 관계없이 독립시켜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十干 十二支에 해당하는 22개 문자는 모두 독립시켜 순서로 배열을 하였다. 이는 曆法과 陰陽五行 사상이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였고 신성시했으므로 干支 문자가 다른 문자의 하부에 귀속되는 것을 금기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사상적인 면을 배려한 것으로 字書와 부수가 갖는 고유의 기능적 측면에서만 보면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다. 실제로 十干에서 무속부자 부수인 甲, 丙, 丁, 庚, 壬, 癸를 제외하고도 乙은 속부자가 3개, 戊는 1개, 己는 2개, 辛 5개에 불과하다. 10개의 문자에 귀속된 자가 총 11개뿐이다. 十二支에서도 무속부자 부수인 寅, 卯, 未, 戌, 亥를 빼고, 子는 14개, 丑 2개, 辰 1개, 巳 1개, 午 1개, 申 3개, 酉 6개이다. 子와 酉 이외에는 “不相襍廁”, “襍而不越”이라는 分部의 기능이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무속부자 부수 36개 중에 15개가 14篇下에 집중되어 있다. 14篇下에는 阜部 계열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숫자와 간지, 이들과 연계된 부수로 배열되었다. 이로써 14篇下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說文』무속부자 부수 36개를 대상으로 세 가지 부분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許慎은 왜 부수의 기능이 없는 무속부자 부수를 독립적으로 세웠는가?

둘째, 무속부자 부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까?

셋째, 어떠한 문자들이 주로 무속부자 부수가 되었는가?

첫째, 許慎이 무속부자의 부수를 他部首와 통합하지 않고 독립시킨 이유와 상황을 8가지로 분석해 보았다.

- 1) 單位의 숫자는 속부자의 有無와 관계없이 독립시켰다.
- 2) ‘據形系聯’보다 오히려 ‘據類系聯’을 우선 고려하여 독립시키기도 하였다.
- 3) 병합이 가능하나 자형의 미세한 차이로 독립시켰다.
- 4) 자형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종류의 유사성으로 독립시켜 ‘據類系聯’을 하였다.
- 5) ‘據形系聯’이 어려워 앞뒤 부수와 무관하게 부득이 독립적으로 끼어 넣었다.
- 6) 논리상 병합해야 마땅하나 병합할 경우 속부자 처리가 어려워 독립시켰다.
- 7) ‘據形系聯’과 ‘據義系聯’을 위해 小篆을 대신해 古文을 표제자로 삼아 독립 부수로 세웠다.
- 8) 干支 문자는 字形과 속부자의 有無와 관계없이 독립시켜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둘째, 36개의 무속부자 부수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許慎은 『說文前·後敘』에서 부수에 대해 “分別部居，不相襍廁”，“襍而不越，據形系聯”이라 언급하였다. 이에서 ‘分別’，‘不襍’，‘不越’은 부수의 기능과 목적을，‘據形系聯’은 부수의 배열 원칙을 말한 것이다. 부수가 귀속된 문자가 없이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分別’，‘不襍’，‘不越’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기능을 갖지 못하는 부수는 전체 540개 내에서 존재 자체를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據形系聯’과 ‘據義系聯’의 방법과 小篆字形，그리고 갑·금문의 고문자 자료를 참고하여 타부수와 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併入之部’와 存續之部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36개 중에 33개의 부수는 타부수와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므로 많은 토론과 지적이 필요하다.

셋째, 어떠한 문자가 주로 무속부자 부수가 되었는가?

숫자 一에서 十까지와 干支 문자는 ‘據形系聯’의 원칙과 속부자의 有無나 多寡와 관계없이 모두 부수로 독립시켰다. 그래서 무속부자 부수 36개 중에 숫자와 간지에 해당하는 문자가 16개 나 된다. 이는 許慎이 살던 당시의 易學的, 曆法的, 思想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字典學的 측면이나 부수 건립의 취지와 목적에는 벗어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자들을 신성시 하여 다른 부수 밑에 귀속시키지 않고 14篇下에 집중시켜 무조건적으로 독립 부수로 세웠다는 것은 과연 반드시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만약 그렇다면

면 天과 地, 陰과 陽, 五行 관련 문자는 왜 모두 독립 부수로 하지 않고, 또 같이 모으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許慎은 최초로 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이를 통해 모든 한자를 자형과 자의에 의해 분류하였고, 검색과 기억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인미답의大功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는 『說文前·後敘』를 통해 부수 설립의 목적과 취지,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몇 마디만 언급하였다. 왜 부수는 540개인지, 분별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據形系聯’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배열하였는지, 부수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속부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부수를 왜 독립시켜야만 했는지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에 대한 보다 나은 답을 얻기 위해 부수 간의 관계, 부수와 속부자의 관계, 속부자의 多寡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참고문헌】

- 許 慎,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초판), 漢京, 1980.03.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鼎文書局, 1977.
 周祖謨, 『問學集』, 中華書局, 1966.
 向 夏, 『說文解字敘講疏』, 中華書局, 1974.02.
 徐紹楨, 『說文部首述義』, 新文豐出版公司, 1975.03.
 江舉謙, 『說文解字綜合研究』, 東海大學出版, 1978.03.
 劉葉秋, 『中國古代的字典』, 麒麟書店, 1980.02.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2.06.
 馬叙倫, 『說文解字研究法』, 香港太平書局出版, 1985.06. (重印)
 董希謙·張啓煥, 『許慎與說文解字研究』, 河南大學出版社, 1986.07.
 蔣善國, 『說文解字講稿』, 語文出版社, 1988.09.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8.11.
 王世賢, 『說文解字導論』, 電子科技大學出版社, 1993.06.
 蘇寶榮, 『說文解字導讀』, 陝西人民出版社, 1993.08.
 左民安·王盡忠, 『漢字部首講解』, 福建人民出版社, 1998.06.
 蘇新春, 『漢語詞義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8.08.
 李 圃, 「字素理論及在漢字分析中的應用」, 『學術研究』, 2000.01.
 馮玉濤·趙兵戰, 「『說文解字』無從屬字部首評析」, 『寧夏大學學報』, 2001.06.
 史淑琴, 「『說文』之空部首研究」, 『甘肅聯合學報』, 2013(1).
 徐 涵·劉忠華, 「『說文解字』出現空部首的原因探析」, 『現代語文(語言研究)』, 2014(2).
 李麗姣, 「『說文解字』無從屬字部首淺談」, 『赤峯學院學報』, 2014(4).
 馬苗苗·淺 議, 「『說文解字』中無從屬字(空)的部首」, 『呂梁學院學報』, 2015.
 진광호, 「非獨立 字素의 유형과 분석」, 『중국어학』, 59집, 대한중국어학회, 2017.06.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說文解字』, 部首, 無屬部字, 歸屬, 小篆		
Key Words	영문	『Shuowenjiezi』, Attribution Word, Zero, Radicals, Small Seal Script		
<div>The Aanalysis of Non Attributed Radicals in 『ShuoWenJieZi』</div> <div>Jin, Kwang-Ho</div> <p><i>Xu Shen</i> compiled the best chinese handbook 『Shuowenjiezi』, and created a concept called radicals, with 540 radicals, all of which were attributed under the head of each part to the system He arranged the Chinese characters that were scattered and provided the convenience of the search. His purpose of making the radicals that "Separated division, unconformable division." (Separated into the number of parts, and not mixed with each other). However, if we look at the 540 radicals in the "main text",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single character attributed to this radical in the radicals that the number of heads is 36. And the number of radicals is only one in 156. There are no letters attributed to it, only a small number of radicals have 540 radicals. Many people have questioned how they function and what they really need.</p> <p>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why should the <i>Xu Shen</i> have to stand on their own independent corps,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ny other rational way to do so?</p> <p>First, he analyzed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 radical of 『Shuowenjiezi』 for 36 that appeared in all the books, and the of the radical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merging.</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진광호 / 秦光豪 / Jin, Kwang-Ho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학부		
	Em@il	jkh@bufs.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9월 13일	심 사 일	2018년 09월 17일
	수 정 일	2018년 09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09월 27일